

사설

# 후마, 지원 없이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마 설립자인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우리신문과의 대담에서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후마의 생명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마 설립자가 말하길 후마는 처음부터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돼야 할 학문적 실험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후마의 개선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다른

아닌 예산이다. 후마는 기본적인 강사료나 수업 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자율 예산을 배분받지 못한다. 일반 단과 대학은 소속 학부생 수를 기준으로 자율 예산이 편성되지만, 후마는 소속 학부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본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 반려다. 학생 독서모임 지원, 방학

프로그램, 교수 간 공동 연구 등 설립 초기 후마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는 후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여러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마의 취지이나,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의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산 부족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후마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활동 기반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를 위한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회차 기사를 준비하며 만난 후마 소속 교수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이후로 예산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대학 전반적으로 삭감됐던 예산이 학과와 단과대학에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반면, 후마의 예산은 여전히 삭감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는 교수 총원 중단으

로도 이어졌다. 국캠 후마 소속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후마에는 신규 교수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교수들이 떠나는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이들에게 강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이 함께 모여 수업의 방향을 논하고 교재를 다듬던 워크숍과 세미나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를 거듭하며 축소됐다. 과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수업의 질이 유지되길 기대하는 것은 교수들 개인적 헌신에 교육을 통째로 떠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교수 총원, 워크숍 축소,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멸. 겉으로는 각기 다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 후마에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상황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후마는 점차 꺾어지지만 남은 기구가 될 것이다.

수업 자체는 유지되고 학점도 부여되겠지만, 정작 그 안을 채워야 할 교육 철학과 인간의 가치 함양은 자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설립 초기 후마와 오늘날 실제 현장의 후마 사이 거리는 더욱 벌어지고, 학생들이 후마를 ‘단순 교양 수업’이라 인식하는 현실은 고착될 것이다.

후마가 스스로를 혁신하려 해도 그 혁신을 뒷받침할 자율 예산의 보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대학 본부가 후마에 안정적 자율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자율 예산을 배정 받는 일반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학과, 어느 단과대학이든 예산 부족은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의 유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안정된 예산이 있어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시봉

# 무기력 세대



박류빈 기자  
f508f508@khu.ac.kr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청년’을 외치지만, 정작 주변 친구들은 여론조사 전화조차 단호히 끊어낸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를 정치 무관심 세대라 부른다. 과연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다. 과거 세대가 5.18 민주화 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특정 정당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왔다면, 우리 세대는 다르다. 과거의 진영 동원이나 당파 싸움은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청년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취업·주거·재테크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정치인에게 듣고 싶다.

양캠프가 위치한 동대문구와 수원시의 공약을 살펴봤다. 대학이 밀집한 동대문구는 청년 비용이 높음에도, 공약속 청년은 여전히 문화 거점을 즐길 복지의 수혜자로만 그려진다. 수원시 역시 단기 현금성 지급 형태의 무상 인강 확대에 머문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이라는 글자만 들어갔을 뿐이지 깊은 고민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달 정부는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막대한 예산 배정이 올해 뿐이겠는가.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취업난, 주거불안, 사회관계 단절,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장 돈만 쥐어주거나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의 근본적인 불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 체감도 낮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정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두 번의 탄핵 정국 속에서 분출된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청년이 왜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지, 청년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의 게으름이다. 기성 정치권이 진정으로 변화할 때 청년의 관심은 따라간다.

동시에 청년 역시 무기력에 빠져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는 우리를 지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안전한 알바환경을 위해서

# 유혹의 손길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범죄 연루와 폭력의 위험이 대학생 알바 환경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최흥기 교수는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해 고수의 알바에 쉽게 유혹받기 쉬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동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적 장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청년층 스스로의 경계심이 필요하다. 고수의 알바는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30대 이하 청년이 53.7%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의 알바 홍보를 통해 범죄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에게 당장의 생활비와 용돈이 급한 청년들이 가장 최적의 타겟이 되는 것이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 높은 시급과 빠른 수익을 앞세운 알바일수록 그 이면을 따져봐야 한다. 고수의 알바를 경계하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일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만평 고수의 알바의 이면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재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